

한인들 결집했다 ...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 확정안 '부결'

투표 시작 3시간 전부터 투표장 주변 장사진 ... 밤 12시 넘어 끝나

한인들이 결집력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인 LA 한인타운을 지켜냈다.

지난 19일 LA 한인타운 내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성을 위한 구역 확정안'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시간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3시간 전부터 투표 장소인 하버드초등학교(330 N. Harvard Blvd., LA, CA 90004)와 나성열린문교회(3281 W. 6th St., LA, CA 90020)에는 투표를 하려는 한인들로 넘쳐났다. 투표장 인근은 교통 체증이 빚어졌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한인 유권자 중 일부는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인들의 의지는 굳었다. 이날 LA는 8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한인들의 열기는 그보다 뜨거웠다.

■ 투표 기다리는 한인 위해 음식, 음료수 제공하기도

LA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5시 현재 두 곳의 투표장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한인들만 총 3천여 명에 달했다. 한인들의 투표 열기에 밤 8시가 마감 시간이었던 투표는 자정이 넘어야야 마칠 수 있었다. 8시까지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까닭이었다. LA한인회는 8시까지 줄을 선 한인 숫자는 약 2,000명에 달했으며, 4시간 이상 기다려 투표한 한인들도 있었다. 투표를 위해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은 한인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한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LA시 선거국은 예상치 못한 투표 열기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 압도적 표차로 부결

투표 결과는 투표장 모습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20일 LA시 선거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1분 현재 잠정 집계된 총 유효 투표 수는 1만9,126표로 이 가운데 찬성표는 282표(1.47%), 반대표는 1만8,844표(98.53%)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을 구역으로 하는 월셔 주민의회(WCKNC)는 지금의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LA시 선거국은 유효 투표수 가운데 1만4,700여 표는 우편투표를 통해, 나머지 4,400여 표는 2개 투표소 현장에서 접수됐다고 밝혔다. 1,300여 표는 재확인이 필요한 표로 분류됐다.

개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시 선거국 직원 약 20명이 수작업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했다. 선거국은 이



▲ LA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과 관련해 표출된 한인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다. 지난 19일 실시된 투표에서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현장에 나와 참여를 하고 있다.

날 오후 2시 46분 무렵 잠정 집계 결과를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날 개표 현장에는 토라 전 LA한인회장, 방준영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이창엽 전 LA한인회 이사장, 그레이스 유 변호사, 한타지킴이 시민연대의 이정화씨 등이 함께 참관했다.

LA시 주민의회국은 올해 들어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성을 위한 구역 확정안'을 포함해 웨스트우드 주민의회 분리안(5월 22일), 히스토리컬 켈처럴 주민의회 분리안(6월 7일) 등 총 3건의 주민의회 분리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성을 위한 구역 확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모두 통과됐다.

한편 이번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성을 위한 구역 확정안' 투표는 방글라데시 공동체가 리틀 방글라데시를 별도의 커뮤니티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 실시됐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LA 한인타운 내 5가와 멜로즈 선상, 웨스트턴과 버몬트 애비뉴 구간을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으로 확정해 줄 것을 LA시에 요구했었다. LA한인타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었다.

■ 우편투표 신청 수 투표 용지 못 받았다면 제보

한편 한미연합회 전 사무국장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9일 실시된 리틀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안 투표에서 가족단위 우편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안내 용지를 받

지 못한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가족단위로 우편투표 신청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원인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에세이 공모전'을 연다.

에세이 주제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한국이해자료 활용'이며 길이는 A4용지 3매 내외이다.

에세이 접수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이다.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6명)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kecla.org) >알림마당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CA Lns Lic # 0B18537

■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10%
즉석보너스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 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신천 보험·재정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